



22130119



KOREAN A: LITERATURE – STANDARD LEVEL – PAPER 1
CORÉEN A : LITTÉRATURE – NIVEAU MOYEN – ÉPREUVE 1
COREANO A: LITERATURA – NIVEL MEDIO – PRUEBA 1

Wednesday 8 May 2013 (morning)
Mercredi 8 mai 2013 (matin)
Miércoles 8 de mayo de 2013 (mañana)

1 hour 30 minutes / 1 heure 30 minutes / 1 hora 30 minutos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examina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
- Write a guided literary analysis on one passage only. In your answer you must address both of the guiding questions provided.
- The maximum mark for this examination paper is *[20 marks]*.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ouvrez pas cette épreuve avant d'y être autorisé(e).
- Rédigez une analyse littéraire dirigée d'un seul des passages. Les deux questions d'orientation fournies doivent être traitées dans votre réponse.
- Le nombre maximum de points pour cette épreuve d'examen est *[20 points]*.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a prueba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criba un análisis literario guiado sobre un solo pasaje. Debe abordar las dos preguntas de orientación en su respuesta.
- La puntuación máxima para esta prueba de examen es *[20 puntos]*.

하나의 제시문을 골라 문학적으로 분석하시오. 분석에는 제시된 질문의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자장면

자장면은 좀 침침한 작은 중국집에서 먹어야 맛이 난다.

그 방은 펍 좁아야 하고, 될 수 있는 한 깨끗지 못해야 하고 칸막이에는 콩알만한 구멍이 몇 개 뚫려 있어야 어울린다. 식탁은 널판으로 아무렇게나 만든 얇은뱅이어야 하고, 그 위엔 담뱃불에 탄 자국이 검고 또렷하게 무수히 산재해 있어야 정이 간다.

5 고춧가루 그릇은 약간의 먼지가 끼어 있는 게 좋고, 금이 갔거나 다소 깨져 있다면 더욱 운치가 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고춧가루는 누르고 굵고 억센 것이어야 한다. 초병(醋瓶)에도 다소 때가 끼어 있어야 가벼운 마음으로 손을 댈 수 있다.

방석도 때에 절어 윤이 날 듯하고, 손으로 잡으면 단번에 짝 하고 달라붙을 것 같은 것이어야 앉기에 편하다. (중략)

10 그리고 그 집 주인은 뚱뚱해야 한다. 머리엔 한 번도 기름을 바른 일이 없고 인심 좋은 얼굴엔 개기름이 번들거리며 깨끗지 못한 손은 소두방(솔뚜껑)만 하고 신발은 여름이라도 털신이어야 좋다. 나는 그가 때에 전 검은색의 중국옷을 입고 있길 바라지만, 지금은 그런 옷을 보기 어려우니 낡은 스웨터로 참아 두자. 어쨌든 이런 주인에게 돈을 치르고 나오면 언제나 마음이 편안하다.

15 내가 어려서 최초로 대면한 중국 음식이 자장면이고(자장면이 정말 중국의 전통적인 음식인지 어떤지는 따지지 말자), 내가 맨 처음 가 본 내 고향의 중국집이 그런 집이고, 이따금 흑설탕을 한 봉지씩 싸 주며 “이거 먹어해, 헤헤헤”. 하던 그 집 주인이 그런 사람이어서, 나는 중국 음식이라면 우선 자장면을 생각했고 중국집이나 중국 사람은 다 그런 줄로만 알고 컸다.

20 스무 살 때던가, 서울에 처음 왔을 때도 나는 자장면을 잘 사 먹었는데 그 그릇이나 맛, 그 방 안의 풍경과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비록 흑설탕은 싸 주지 않으나 그 주인의 모습까지도 내 고향의 자장면, 그 중국집, 그 장래(掌櫃)와 다르지 않았던 것을 기억한다. 해서 내가 처음으로 으리으리한 중국집을 보았을 때, 그리고 엄청난 중국 요리 앞에 앉았을 때 나는 그것들이 온통 가짜처럼 보였고 겁이 났고 괜히 왔구나 했다.

25 그러나 내 친애하는 자장면 장수 여러분도 자꾸만 집을 수리하고 늘리고 새 시설을 갖추는 모양이다. 돈을 벌고 나보다 훌륭한 고객을 맞고, 그리하여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것이야 물론 그분들의 정당한 소원이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 동네와 내 직장 근처에만은 좁고 깨끗지 못한 중국집과 내 어리던 날의 그 장래 같은 뚱뚱한 주인이 오래오래 몇만 남아 있었으면 한다.

30 그러면 나는 어느 토요일 저녁때 혹은 일요일 점심때 호기 있게 내 아이들을 인솔하고 우리 동네 그 중국집으로 갈 것이다. 아내도 그때만은 잠시 가게부를 잇고 흔쾌히 따라나설 것이다. 아이들은 입술에다 볼에다 자장을 바르고 깔깔대며 맛있게 먹을 것이고, 아내는 아이들을 닦아 주면서 역시 맛있게 먹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모처럼 유능한 가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5 퇴근길에 친구를 만나면, 나는 그의 어깨를 한 팔로 얼싸안고 그 중국집으로 선뜻 들어갈 것이다. 양과 조각에 자장을 묻혀 들고 “이 사람, 어서 들어” 하며, 고량주 한 병을 맛있게 비운 다음, 좀 굳었지만 함께 자장면을 나눌 것이다. 내 친구도 세상을 좁게 겁 많게 사는 사람이니, 나를 보고 인정 있는 친구라고 할 것이 아닌가.

자장면은 좀 침침한 작은 중국집에서 먹어야 맛이 난다.

정진권 수필선 자장면 <교음사> (2000)

- (a) 이 글에서 “자장면”의 상징적 의미를 설명하시오.
- (b) 작가에게 “자장면”을 먹을 때의 시대적, 공간적 배경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설명하시오.

2.

첫사랑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짜그락 짜그락 두드려보았겠지
난분분 난분분* 춤추었겠지
5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바람 한 자락 불면 획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햇شم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 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 보아라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덴 자리에
1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고재종 쪽빛문장 <문학과사상사> (2004)

* 난분분: 눈이나 꽃잎 따위가 흩날리어 어지럽게

- (a) 눈과 겨울 등의 자연현상에 대한 작가의 성찰이 이 시의 주제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설명하시오.
- (b) 이 시에 사용된 시각적 요소의 역할을 설명하시오.